

● 5월 12일 나의 하루는...

김근태
김노국

어휴... 힘들이

오늘은 건강 달리기, 걷기 가 있는 날이다.
 10시 까지 멧돌공원에 도착 해야한다.
 6시에 일어나 더 자도 된다는 생각에
 퉁클 거리다 8시에 일어난다.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고 여유롭게 9시 10분에
 나가있다. 상문역에서 창동 노원을 가서
 기호선으로 갈아타고 마곡역에 내렸다
 시간도 많고 세상극경. 하고 싶어서
 경어 가게로 마음을 먹었다.
 약속 시간까지 15분이 남았다. 점점
 초조 해지며 떨기 시작 했다. 아무 사람
 이나 잡고 길을 물어본다.
 약속 시간까지 10분 남았다. 어느 아파트
 안에서 길을 알았다. 큰길로 나가 택시
 잡기로 마음 먹는다.
 약속 시간까지 5분 남았다. 밖으로 나가니
 고속도로가 나온다. 다시 앞던 길을 돌아
 간다. 방금 개업한 택시를 겨우 잡고
 목적지로 향한다. 재훈이한테 전화가
 온다. 망했다 나 배고 다 왔나 보다.
 그래도 택시 아저씨가 눈치 채는지 마구
 밟아준다. 택시에 내리고 열심히 100미터
 108등을 했다.